

第15輯

禮山文化院報

特輯

• 清白吏

烏山縣·任存城·今勿縣



任存城은 나라사랑의 表象

亡國의 恨에서 復國의 義志가 噴氣되어 百濟의 內浦 遺民이 奮起해서 甑기있던 200餘城을 奪還하고 泗沘城과 熊津城을 包圍하고 있을때 資治通鑑의 著者 司馬光의 名句 가운데

「이제 의로운 城이 敵의 한가운데 싸여 있어 움직이면 사로 잡히고 총총히 新羅로 가면 또한 나그네가 된다. 빠져나가 기 어려워 뉘우치고 닦해도 도리가 없다」고 記述했다.

今以一城之地，居敵中央．苟或動足，即爲擒虜．縱入新羅，亦爲羈客，脫不如意，悔不可追』《資治通鑑卷 200 唐紀 16 高宗上之下》

百濟復興義兵의 發祥地인 任存城은 우리民族史上 最初의 義兵의 憤起地요 나라사랑의 象徴인 史蹟地가 망치되어 있어 憤然 汎郡民이 모두 參與해서 가꾸기로 했다.

克己精神의 선비고장

일찌기 孔子는 君子가 사는 東方으로 이민 가고 싶어했다는 기록이 “논어”에 보인다. 漢書에는 孔子가 가고 싶어했던 동방이 “조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군자”란 功利를 멀리하고 德性을 숭상하는 “선비”를 말한다. 그리고 옛 賢人들은 功利를 추구하는 사람을 “소인”으로 규정하고 소인이 많은 時代를 亂世로 보았고, 선비가 많은 時代는 治世라고 했다.

“선비”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좇는 마음은 지극히 어려운 자기와의 싸움없이는 가질수 없다.

學問도 극기에서 출발하고 政治도 극기에서 시작이 된다. 극기가된 學者는 깊은 산속에서 은은한 香氣를 내뿜는 蘭草와도 같다.

선비가 정치를 할때는 재주보다 덕성을 더 평가 한다. 德性은 是非를 명백히 구별 하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은 너그러운 마음가짐이다. 是非가 명백하기 때문에 비리에 대해서는 명예와 목숨을 걸고 선비는 충고하고 싸운다.

우리 歷史상 선비들의 政治時代인 世宗朝와 英·正祖가 그리워진다. 이는 君主가 참된 선비들을 登用 했기때문에 빛을 냈다.

오늘의 첨단과학문명을 옛사람들이 보았다면 그 얼마나 탐복 했을까하고 생각해 본다. 그러나 實學이 한참 팽배 해질때 인 正祖가 二十年만 더 壽를 했더라면 하고 아쉬움을 느낀다. 우리도 첨단과학의 잠재력이 없었던것은 아니다. 선비정치에 의한 實學과 또 實學에 의한 과학이 뿌리를 내렸을 것이 아닌가

이러한 선비는 때와 곳에 의하여 淸操의 기운이 팽배해진 곳에서 난다고 했다. 內浦地方의 중심인 우리고장이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으로 일러왔고 자처도 해왔다. 이것은 우리고장이 淸白遺子孫의 精神을 連綿이 이어온에서 오늘이 있다고 한다.

(李恒履)

清白遺子孫之鄉

— 淸貧과 忠諫은 선비의 淸操 —

혼탁한 世俗을 바로 잡기위해서 政府에서는 이에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선비의 고장으로서 淸操의 전통을 뿌리내린 先人들의 淸白과 忠諫을 照明하여 귀감으로 삼어야 하겠기에 그 文獻과 行狀을 발췌해서 밝혀 본다.

宰相들이 淸貧으로 忠盡之効 또는 垂範을 생활화하고 淸和를 追求해 왔다. 淸貧으로 그이름을 남긴 厓村 黃喜(1363 - 1452) 政丞의 아들 致身(1397 - 1484)이 일찍부터 出世하여 벼슬이 參議에 이르러 돈을 모아 집을 크게 새로 마련하니 厓村公 말하기를 『선비가 청렴하여 비새는 집안에서 나라 정사를 봐도 나라일이 잠길지도 의문인데 거처를 이다지도 호화롭게 하고는 賄賂가 성행치 않았다고 할수있느냐』하고 그 새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같은 故老相傳은 고장에도 있다. 宣朝때 領相 鵝溪 李山海(1539-1609) 先生은 일생을 셋집(貰家)에서 살아왔는데 그의 情相이 荒涼하고 艱窘하였다. 客이 와서보면 말등에 덮어주는 방식 또는 담요(馬鞵)위에 앉아 있기도 하며 비가 나리면 자리(筵)로 새는곳을 막기도 한다. 집에서의 차림은 떨어진 옷과 도포며 식사도 거친식사로 아주 편안이 여겼다.

參議 벼슬인 先生의 아들 慶준이(1567 - 1644)이 宰相인 아버님 가정의 사생활을 민망하게 여겨서 一舍(집)을 마련 하겠다고 懇請을 드리면 『나의 素性을 온전하게 해주는것이 진실로 내마음을 卞安하게 하는것이며 거처의 陋함이야 무슨병이 되겠느냐』고 말했으며 추할때까지 세집었다.

이와같은 淸操의 고장에서 淸白吏에 選錄된 先人 權瑣 先生과 李命後 先生의 行狀을 밝혀 본다.

叔玉(字) 權瑣 公行狀

— 中宗朝 淸白吏 —

權瑣 1446年(世宗 28年 丙寅) ~ 1500年(燕山君 6年 庚申) 字는 叔玉 安東 權氏이며 1468年(世祖 14年 戊子)에 生員과 進士 兩試에 合格하고 1500年(庚申)에 弘文館 典翰

을 지낸 名賢으로 墓所가 大興郡 南山里 鵲洞(現 鷹峰面 坪村里)에 모셔져 있다.

中宗朝에 清白吏로 被選 되었다.

공의 諱는 瓚이요 字는 叔玉인데 安東權氏이다.

太師公 幸을 始祖로 하여 代々로 벼슬이 끊이지 않아 東方의 甲乙族이 되었다.

諱 允均은 高麗末에 工曹典書 이었는데 辛禑와 昌의 政亂時에 벼슬을 버리고 歸隱 하였으며 여러번 李王朝의 부름을 받았으나 永々就仕 하지 않고 沒世 하였으니 이분이 바로 공의 曾祖가 된다.

祖의 諱는 恢인데 郡守이고 贈職으로 吏曹參議이며 考의 諱는 有順인데 牧使이고 贈職은 吏曹參判이고 妣는 延安 金氏인데 牧使 學知의 따님이요 貞夫人으로 贈封 되었다.

공의 墓碣에 이르기를 丙寅年(1446年 世宗 28年)에 공을 出生하고 남편 보다 먼저 節義에 관세되는 사건으로 死節 하였다고 하였으나 세대가 遙遠하여 記錄이 없으니 지금에 와서는 무엇 때문에 抱節 하였는지 또는 精確하게 어느 時期인지 알수 없지만 門勢가 대대로 끊기지 않는 福과 聖善한 節行이 또한 이와 같았기 때문에 의당 鉅人을 篤生하여 門戶를 빛내고 士林의 淸標가 되었다고 하겠다.

공이 어려서 부터 몸집이 클뿐만 아니라 才能이 特秀하여 가르치는 이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고 글 배우기를 좋아 하여 自力으로 文과書에 能하였으며 어른이 되면서 儀表가 秀朗하였고 度量과 글재주가 남달리 뛰어나 말을 하면 반드시 사람들을 驚嘆케 하였으며 筆法 또한 精巧하고 強健하며 예쁘고 整然하여 남들이 우러러 보기를 河漢과 같이 여기고 아무도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한다.

戊子年(1468年 世祖 14年)에 生員과 進士 兩試에 合格하니 聲望이 더욱 자자하여 주위에서 羨望의 對象이 되어 早晚間 크게 出世 할것이라고 하였는데 한 동안 머뭇 머뭇 科擧에 登第하지 못하였다가 壬寅年(1482年 成宗 13年 公年 37才)에 가서야 文科 別園(親試)에 次席으로 及第 하니 金驥孫과 同榜이라 朝廷에서는 人材를 얻었다고 치하 하였다 한다. 癸卯年 則 다음해에 翰苑에 들어가 檢閱이 되었다가 待教로 승진하게 되니 成宗大王께서 공의 風儀를 보고 이사람은 나

의 鳳凰이라고까지 칭찬하였으며 丙午年(1486年 成宗 17年)에(喪服을 벗은 일이 있는데 이는 계모의 服이다.) 服을 벗고 承政院 注書가 되었다가 禮賓寺 主簿로 전임 되었고 다시 工曹佐郎이 되었다가 갑자기 司憲府 持平으로 발탁되는등 계속 승진 하였다. 사헌부 지평으로 있으면서 三字銜疏(從二品 以上 大臣을 論斥하는 上疏)를 올려 大臣인 尹弼商과 李克敏의 奸邪함을 論斥하다가 결국 破官削職 된바 있었지만 그러나 公의 名聲은 一朝에 떠들석 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吏曹正郎에 임명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막강한 尹 李의 勢力으로 이조정랑의 자리를 부지하지 못하고 유감스럽게도 고의적인 金山郡守로 出補 되었다.

그러나 조금도 분하고 탄식의 빛을 보이지 않고 오직 清簡으로 節身하고 勤勵로 善政을 베풀고 德으로서 教化하니 金山郡內가 6年만에 治德과 教化가 大行하여 百姓들이 부모와 같이 따랐으며 生祠堂과 頌德碑를 세워 永世토록 欽慕 했다 한다.

乙未年(1499年 燕山君 5年) 다시 사도시 청정인 내직으로 전보 되었으나 이 조정랑이 친족임으로 혹시라도 정실인사라는 혐의가 있을까 하여 오래도록 다른 보직으로 옮기지 못하다가 다음해 庚申年에서야 사간원 사간으로 제수 받고 곧 홍문관 전한으로 발탁 되었으니 이는 아주 特選이었다.

諫爭하고 補拾 하는데 자기 직분을 다하지 않는데가 없어서 燕山君이 公을 칭찬하여 말하기를「堂々하다 이사람이여 지성스럽다 이사람이」라고 극찬 하였는데 우연히 무슨 병인지도 모르게 庚申年(1500年 燕山君 6年) 月 日에 本家에서 歿하시니 壽는 55세이다. 公의 父親 참판공 以上은 咸昌에서 世居 하였는데 이제 公을 大興 鵲洞 南山里 丑坐未向原에 葬禮함은 夫人 金氏의 故鄉을 좇아 왔기 때문이다.

공이 탁월한 재주와 활달한 도량으로 德器와 華間이 일찍 부터 성숙하였으나 中年에서 及第를 했고 玉같은 筆翰으로 弘文館의 官吏가 되었으니 毅然한 風彩가 더욱 어울리었다.

공이 사간원에 재직시에는 諫爭이 勤功 하였고 外邑에 재직시에는 治蹟이 크게 나타 났으며 經筵에 奉職할 때는 補益이 弘多 하였는데 前後 內外職을 두루 歷任 하면서 오직 奉公에만 힘쓰고 一毫도 私營產業에는 생각 조차 하지 않았다.

水蘖같은 志操를 굳게 지켜 清白吏에 被選 되니 同時의 僚友들이 公을 期望 하

기를 公輔의 大器로 크게 登用되어 自己의 所信과 抱負를 활짝 꽃피우리라 하였는데 壽運이 너무 짧아 百에 一도 施用해 보지 못하고 갑자기 殞命하니 이는 곧 邦家の 不幸이요 國民의 無福이니 어찌 특별히 구구하게 後孫들의 私慟으로 끝이겠는가

公이 成就한 上疏의 論斥內容을 들어 보면 尹弼商을 定罪하여 誅殺 할것을 請한 것은 戊午士福에 연루되어 死刑당한 評事 寒齊 李穆 先生의 直書와 같고 李克敬의 醜行을 論罪한것은 濯纓 金駟孫의 峻嚴한 氣概와 剛直한 節介와 같아서 天地가 一同하여 지금까지 誦慕함이 끊이지 않고있다.

이제 公이 一章의 上疏로 兩奸을 論駁한것은 실로 國家를 爲한 深計이었으나 조금도 顧慮함이 없이 결국 削出擯斥에 到達 하였지만 조금도 怨悔가 없었으니 어찌 李金 兩公에 比하여 足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연산군의 잔학한 心性은 臣僚들이 조금만 그의 旨意를 거슬리면 무조건 誅殺 하였지만 오직 公만은 獻規와 補闕에 遺漏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포상과 은총을 받았으니 어찌 公의 正直하고 忠亮한 素行으로 그의 속마음을 感服 시킴이라 하지 않겠는가?

夫人 金氏는本이 盈德인데 進士 周의 따님으로 淑人에 封하였고 閨法이 甚嚴하여 婦道에 缺陷이 없었으며 女史의 名譽가 있었다.

公보다 二十四年 後 癸未年에 (一五二三年 中宗 十八年) 作故하니 그는 癸酉生으로 壽는 七十一세라 雙窀으로 墓 左側에 安葬하다. 三男 五女를 出生 하였는데 長男은 弘手로 縣監이고 次는 毅手인데 早歿하여 후사가 없고 季는 福手인데 府使이다. 女는 進士 卜世傑과 察訪 南宣과 應教 姜洪과 監司 鄭雋과 進士 朴世蕃에게 출가 하였다.

縣監 弘手의 一男은 綱인데 知中樞요 二男 維와 三男 繪는 監察이고 四男 紳과 五男 紋은 司直이다.

府使 福手의 아들은 紀인데 僉使이다. 曾孫과 玄孫 以下는 다 記錄하지 못한다. 오직 中樞公(弘手의 子 綱)의 玄孫인 珪가 孝宗朝에 清白吏의 嫡長孫(六代孫)으로 禮賓主簿로 採用 되었는데 若性的 高祖가 된다.

公께서 크게 세상에 쓰여지지 못하였고 따라서 各派 子孫들 역시 不振 하였지만 先祖의 蔭德이 後孫에게 報施 됨을 어찌 하나라도 속임이 있겠는가?

슬읍다. 公이 朝廷에 있을 때는 이미 忠誠과 節概가 이와 같이 높고 奇位 하였으며 餘他 內行은 家庭에서는 孝友와 宗族에서는 仁慈와 鄉党에서는 慈惠하여

은세상에 準則이 되었으니 일일이 한 두 말로서 다 論述 할수 없다. 그리고 이와서 모든 行蹟이 다 霧沈泡滅 되어 가히 방불하게 형상 할수 없음이로다.

그러나 當時 孫子인 維가 墓碣을 撰하였고 또 涵齋齊 洪貴達이 공을 기린(誄文(글))이 있어 대략 공의 志節과 事行을 기록 한것이 있어 足히 後世에 表現 할수 있지만 小子가 僭妄하게도 감히 할말을 舒述 한다면 明君을 輔弼하여 臣節을 다하는것은 常事이기 때문에 죽히 말 할것이 없지만 오직 昏辟(昏味한 王)을 만나 거슬리지 않게 忠敬을 다하여 臣子の 常分을 不失함은 가장 공의 難處가 될것ियो 그리고 또한 直氣와 峻節은 스스로 濯纓 諸公에게 比較 할만 하다고 여겨진다
혹 立言 君子의 考信의 材料가 되어 裁擇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崇禎甲申後三乙未 十一月 日 十代孫若性 謹狀(1775年 英祖 51年)

(後學 田溶國 謹譯)

禮山 郡守의 遵法精神

— 近侍 中官의 奸計 —

宣祖 때 王의 측근에서 일하는 한 中官(내시)이 있었다. 시골 수령들이 모두 王의 측근인 侍官이라고 해서 융숭한 대접을 했다. 그런데 오직 禮山郡守 某氏만은 법규대로 대접을 해서 조금도 특별히 후대함이 없었다. 侍官이 禮山郡守를 서운하게 여겨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王에게 아뢰기를 「各 고을 원들이 모두 법대로 臣을 대접해서 조금도 후대함이 없었는데 오직 禮山郡守만이 臣이 王을 가까이 모시고 있고 殿下의 귀여움을 받고 있다고 하여 특별히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 다. 그래서 臣이 고향에서 빛을 냈사오니 이는 오직 임금님의 은덕인가 하옵니 다」라고 하여 거짓 보고를 했다.

임금님이 이 말을 듣고 다른 列邑 수령들은 모두 法대로 했으므로 가상히 여기고 특별히 승진시켰으나 禮山郡守는 근신이라고 해서 賤臣에게 아첨하였으니 매우 비굴하다고 여겨서 승진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內侍에게 후례를 베풀 수령들은 승진되고 법대로 대접한 사람은 박대했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되는 줄 알았다.

그 뒤에 經筵官 한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王에게 上啓해서 王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王이 비로서 內侍의 간계로 이러한 變亂이 생긴 것을 깨닫고 전후 사실을 臣下들에게 알리게 되니 臣下들이 통탄하지 않는이가 없었다. (東平尉公私聞見錄에서)

(原文)

公諱璜字叔玉權氏出安東胄于太師幸世襲晉組遂爲東方甲乙族有諱允均麗季工曹典書耦昌政亂棄官歸隱累被朝徵召不就以歿世是爲公曾祖諱恢郡守贈史曹參議公諱有順牧使贈史曹參判妣廷安金氏牧使學知女贈貞夫人公墓碣云丙寅生公先翁抱節死世遠無記今不知緣何而抱節且的在何時而以世門未艾之福聖善之節行又如比宜其篤生鉅人以光門戶以標士林敷公幼岐嶷殊特不煩教課能自力劬文書及長儀表秀朗藻思溢發出語必驚人隸法亦精造妍整人仰之若河漢莫能梯接也戊子中生進兩試聲望益籍籍咸謂朝夕大闢而頗踴躍不弟至壬寅登別園乙科與金驥孫同榜朝廷賀得人癸卯入翰苑爲檢閱陞待教成廟嘗稱其風儀曰比吾鳳凰也丙午憂吉拜承政院注書轉禮賓寺主簿旋拜工曹佐郎俄授司憲府持平帶三字銜疏論大臣尹弼商李克墩奸邪見罷削直聲振一朝未幾叙拜史曹正郎甲寅當路復挾前憾出補金山郡守公無幾徵色飾身清簡視事動勵居六年治化大行百姓愛如父母建祠刻石易世而寄慕不忘已未入爲司導寺金正因銓郎親嫌許久未遷庚申授司諫院司諫擢弘文館典翰極選也諫爭補拾無不稱職燕山亦嘗褒之曰堂堂哉斯人曷曷哉斯人無何感疾遂以是歲月日卒于家壽五十五參判公以上世居咸昌地至是葬公於大興鵝洞南山里向未原從內子金氏鄉也公以儻偉之才宏博之量德器早成華聞夙彰中歲始通籍珥筆爲香案吏風彩已毅然可觀而建夫慮憲臺則讜言勁澁郡邑則治績茂著居經樞則裨益弘多且履歷內外只知奉公不以一毫營產業持冰蘄以至被選清白同時僚友期以公輔器不日登庸庶展其抱滿而還算遽損百不施一是誠邦家之不幸生民之無祿豈特區區後裔之私慟而已哉抑即其所成就而論之罪狀尹弼商而請誅如評事李公穆直書李克墩之醜行如濯纓金公峻氣直節固已軒天地動一世世至今誦慕不衰今公一疏並駁兩奸爲國家深計小無所顧忌卒及於削黜殛斥而無怨悔寧不比並儔匹於諸公歟且以燕山之殘虐臣僚小忤旨意輒見誅殺而獨於公之獻規補闕不徒不忤反賜褒寵豈非公之正直忠亮素有以服於其心感於其衷而然者耶金氏籍盈德進士周女封淑人壺法甚嚴婦道無缺有女士譽後公二十四年癸未歿距其生癸酉爲七十一雙窆於公之墓左舉三子女男長弘手縣監次毅手早歿無后季福手府使女適進士卜世傑察訪南宜應教姜洪監司鄭尙進士林世蕃縣監男綱知中樞維翰監察紳紋司直府使男紀會使曾女以下不盡錄而惟中樞公有玄孫曰珪孝廟朝以清白吏適長孫被採用卒官禮賓主簿寔爲若性之高祖考也公既未究其用而各派雲仍亦皆微蔽不振報施之必於後者一何謬歟噫公立朝之忠清節槩既如是卓犖奇偉則諸孝友於家仁于宗族惠于鄉黨足爲世準則者宜亦不暇一二談也而今皆霽沈泡滅不可得以往像矣然在當時有孫維所撰墓碣文有涵虛齊濟公貴達誅公文畧道其志節事行亦足以表見於後世矣小子僭妄敢述而申曰輔明君盡臣節是常事不足道惟昏辟而不違忤克忠敬俾不失臣子之常分最爲公之難處而且直氣峻節自足比浮於濯纓諸公庶或爲立言君子所考信裁擇焉爾

崇禎中後三乙未十一月 日十代孫若性謹狀

潛窩 李命俊公 行狀

— 仁祖朝 清白吏 —

李命俊 1572年(宣祖 5年 壬申)~1630年(仁祖 8年 庚午) 字는 昌期 號는 潛窩 또는 退思齋라 하였고 全義李氏이다. 29세에 進士試에 合格 했고 3年后인 1603年(宣祖 36年 癸卯)에 庭試에 壯元을 하였으며 德山縣監을 지낸 名賢으로 死后 16年인 1648年(仁祖 26年 戊子)에 當時 溫陽郡守 趙克善의 疏請으로 清白吏에 被選 되었다.

公의 諱는 命俊이요, 字는 昌朝이니 咸鏡北道 兵馬節度使를 지내고 議政府 領議政으로 追贈된 清江 李公 諱 濟臣의 四子 아들이다.

清江公이 文武를 兼한 큰 재주가 있으면서도 그 抱負를 제대로 發揮하지 못하였지만 지금 士大夫 中에서 前王 時代의 人材를 손꼽아 볼때에 큰 일을 맡길만한 人材로는 清江이 반드시 그사이에 끼이게 된다. 清江公께서는 世上을 떠날때에 公의 나이가 열 두 살이었지만 初衷을 禮로써 치렀으며, 月川 李廷龜과 白沙 李恒福에게서 學問을 닦았고 牛溪 成先生(渾) 門下에서 오랫동안 修學하였다. 學問이 스승을 닦았고, 稟性이 剛세고 正直하며 뜻이 金石과 같이 굳었다.

事實의 是非를 가릴때에는 이치의 옳고 그름을 마음 속에 한번 定하면 千萬의 사람이라도 꺾을수가 없었다.

正當한 짓을 하거나 不當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貴하고 勢道가 있건 의롭고 천하건 간에 그런것은 아랑곳 없이 옳고 그름을 준엄하게 가리었다. 나아가고 물러날 자리, 사양할 것과 받을것에 對하여 마음에 털끝만큼이라도 不安한 점이 있으면 구차스러운 行動을 하지 않았으니, 대체로 그 行動이 지나침은 있을지 인정 不足한 점은 없었다. 二十九세에 進士試에 及第하고 三年 뒤인 癸卯(1603)年에 庭試 文科에 壯元하여 成均館 典籍, 司憲府 監察, 禮曹, 兵曹, 刑曹, 戶曹等 四曹의 佐郎, 知製教 春秋館, 記注官, 高山道 察訪, 德山, 西原 두 고을의 縣監, 平壤府 庶尹, 司憲府 掌令

軍器寺正, 弘文館修撰과 校理 및 應教, 忠清道觀察使, 刑曹參判, 戶曹參判, 全州府尹, 江陵大都護府使, 司諫院大司諫, 兵曹參判 등을 歷任하고 나이가 五十九세에 世上을 떠나니 國祿을 먹은지 三十年이 되었으나 제대로 입을 만한 값싼 옷 한벌이 없었고 妻子는 恒常 주린 빛을 면하지 못하였다.

공이 江陵에서 돌아온 것이 尙上(지금의 임금)이 卽位한지 八年만이였다.

上疏를 올려 時政의 잘못된 점을 極論하고, 하나 하나 지적하여 임금의 잘못을 들어 是正할 것을 論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다른 사람으로서는 敢히 업두도 못낼 말들이었다. 또 말하기를 「臣이 듣자오니 한 두 사람의 朝臣이 옳지 않은 方法으로써 사사롭게 女子를 바쳤다고 하는데 옳지 않은 길이 한번 열린다는 것은 나라가 亡할 징조이니 請컨대 내어 쫓으소서」 하였다.

上疏가 들어 가자 임금께서 卽時 그 女子를 내어 보냈고 特命으로 공을 大司諫으로 奏수하였다.

이것을 본 大臣들이 공의 疏請으로 因하여 알려진 女子를 誣매한 사람을 罪로 다스릴 것을 請한즉 임금이 怒하여 말씀이 대단히 嚴하니 朝臣들이 모두 두려워 하였지만 공은 王命(大司諫 就任)을 받지 않고 다시 上疏를 올렸는데 말이 더욱 切實하니, 임금께서 感動하여 잘못된 것을 깨닫고 손수 글을 써 내리어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공이 그제야 出仕하였다가 바로 뒤에 病으로 辭職하였는데 다시 兵曹參判으로 任命하였으나 辭任하고 陽川의 箕箕골로 돌아가서 草家집 두어칸을 짓고 살았는데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였다.

공이 일찌기 그 號를 潛窩라고 하였는데 이때부터 그 집을 退思齋라고 하였으니 임금을 잊지 않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病이 더치자 遺命으로 장사를 儉素하게 지낼 것을 당부하고 가까운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 아들들을 부탁하고 婦女子를 물리친 뒤 平安한 자세로 世上을 떠나니 이혜(1630) 12月22日 이었다.

訃告가 傳하여지자 임금께서 下敎하여 말씀하기를 「李야무(李命俊)는 나라 일에 온 정성을 바치었고 임금의 잘못을 바로 잡는데 뜻을 두었더니 不幸히 世上을 떠나니 내가 심히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 初喪費用이나 葬事의 用役을 모두 國家에서 支給하여 그 忠誠을 밝혀 주라.」고 하였다.

다음 해 辛未(1631)年 2月 16日에 楊根의 淸江公山所 왼쪽 長坐의 언덕에 장사 지내었는데 이때의 자세한 경위가 淸江公의 墓碑에 갖추어 실리어 있다.

공이 벼슬살이 할 때에 自己 몸 가짐을 反省하면서 아랫사람을 단속하고 法을 지키

고 職務에 忠實하니, 간사한 무리들이 기를 펴지 못하였고 비록 嚴한 上官이라도 自身의 私情을 채우기 爲하여 公의 말을 조리들림 할 때에는 내어 쫓지 않은 例가 없었다.

西原縣監으로 있을 때 하루는 물세들이 城中으로 모여 드는 것을 보고 公이 命을 내리어 허술한 옛 방축을 修理하고 碣을 쌓게 하였더니 바로 뒤에 큰 장마가 저서 耕地와 집이 모두 물속에 잠기었으나 城은 무너지지 않아서 百姓들의 피해가 없었으니 미리 防備한 때문이었는데 온 境內가 神明이 通하는 어른이라고 칭송하였다.

平壤은 家屋들이 서로 층층히 붙어 있고 어영에는 불이 붙기 쉬워서 해마다 火災가 심하였다. 公이 이 고을(庶尹으로)에 赴任하여 기와장(匠)이나 용기장이를 위하여 그 稅金을 減하여 값을 싸도록 하여 주니 百姓들이 즐겨 이 기와를 사들여 쓰니 一年 뒤에는 기와집이 半이 넘었다. 기와 이은 집에서 무명으로 稅金을 받아서 百姓이 別 稅金으로 代充시키니 公의으로나 私의으로나 모두 救濟되었다.

癸丑(1613)年 獄事(金佛男이 永昌大君을 推戴한다고 誣告하여 일어난 獄事)에 간사한 무리가 公을 시기하여 法을 어기어 가면서 까지 蝕德으로 귀향 보내니 곤란하고 가난하기는 더욱 甚하였으나 그 志操와 言行은 조금도 變함이 없었다.

이때 流言蜚語가 길목마다 나돌아서 西宮(仁穆大妃)이 弑害 되었다는 所聞이 있었다. 公이 素服으로 外地에 있었는데 白沙李公(恒福)이 廢母를 諫하다가 罪를 얻었다는 말을 公이 上疏를 올리니 極烈한 語調로 一貫되어 있음으로 縣史가 敢히 받지 못하였다.

公이 답답하고 슬픈 나머지 물에 빠져 죽으려 하였는데 집사람이 그 기미를 알고 救하여 이에 無事하였다. 癸亥(1623)年에 反正이 된後 學士으로 불려 들어 갔다가 바로 軍器寺 正으로 승진되었고, 玉堂에 선발되어 들어 갔다가 命(御史)을 받고 嶺南에 내려가서 民情을 살피었는데 미처 돌아 오기전에 忠淸道 觀察使로 任命되었다. 그 뒤 한 달 만에 李适이 叛하여 임금께서 公州로 避難하시니 公이 밤낮으로 正성을 다하여 大事에 결집함이 없게 하였더니 慰勞의 뜻으로 嘉善大夫로 陞級시켰다.

丁卯(1627)年에 西虜가 쳐들어 와서 임금께서는 江華로 피난하시고 世子가 委任을 받아 南下하자 公이 모시고 全州에 이르렀는데 이때에 流言蜚語가 나돌기를 敵軍이 깊어 쳐들어왔으므로 海上(섬)으로 移避하려 한다고 하니 公이 江都에서 한 발작도 더 멀리 떠나서는 아니 된다고 역설하고 또 東宮(世子)께 들어가 뵈고 힘을 다하여 軍士를 調發하여 구원하러 갈 計策을 力說하였다. 뒤에 임금께서 이 消息을 들으시고 매우 아담담게 생각하여 특별히 虎皮와 鹿馬(宮中에서 기르는 말)를 하사하여 褒獎하였다.

江陵風俗에 財役(契?)을 設置하여 運營하고 있는데 가난한 百姓들이 이 負擔을 견디지 못하였다. 公이 土豪들을 불러 이 制度를 嚴禁하기로 約束을 하고 이기는 者는 法에 依하

軍器寺正, 弘文館修撰과 校理 및 應教, 忠清道觀察使, 刑曹參判, 戶曹參判, 全州府尹, 江陵大都護府使, 司諫院大司諫, 兵曹參判 등을 歷任하고 나이가 五十九세에 世上을 떠나니 國祿을 먹은지 三十年이 되었으나 제대로 입을 만한 갖춘 옷 한벌이 없었고 妻子는 恒常 주린 빛을 면하지 못하였다.

공이 江陵에서 돌아온 것이 尙上(지금의 임금)이 即位한지 八年만이였다.

上疏를 올려 時政의 잘못된 점을 極論하고, 하나 하나 지적하여 임금의 잘못을 들어 是正할 것을 論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다른 사람으로서는 敢히 엄두도 못낼 말들이었다. 또 말하기를 「臣이 듣자오니 한 두 사람의 朝臣이 옳지 않은 方法으로써 사사롭게 女子를 바쳤다고 하는데 옳지 않은 길이 한번 열린다는 것은 나라가 亡할 징조이니 請컨대 내어 쫓으소서」 하였다.

上疏가 들어 가자 임금께서 卽時 그 女子를 내어 보냈고 特命으로 공을 大司諫으로 제수하였다.

이것을 본 大臣들이 공의 疏請으로 困하여 알려진 女子를 중매한 사람을 罪로 다스릴 것을 請한즉 임금이 怒하여 말씀이 대단히 嚴하니 朝臣들이 모두 두려워 하였지만 공은 王命(大司諫 就任)을 받지 않고 다시 上疏를 올렸는데 말이 더욱 切實하니, 임금께서 感動하여 잘못된 것을 깨닫고 손수 글을 써 내리어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공이 그제야 出仕하였다가 바로 뒤에 病으로 辭職하였는데 다시 兵曹參判으로 任命하였으나 辭任하고 陽川의 箕箒골로 돌아가서 草家집 두어칸을 짓고 살았는데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였다.

공이 일찌기 그 號를 潛窩라고 하였는데 이때부터 그 집을 退思齋라고 하였으니 임금을 잊지 않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病이 더치자 遺命으로 장사를 儉索하게 지낼 것을 당부하고 가까운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 아들들을 부탁하고 婦女子를 물리친 뒤 平安한 자세로 世上을 떠나니 이해(1630) 12月22日 이었다.

訃告가 傳하여지자 임금께서 下敎하여 말씀하기를 「李 아무(李命俊)는 나라 일에 온 정성을 바치었고 임금의 잘못을 바로 잡는데 뜻을 두었더니 不幸히 世上을 떠나니 내가 심히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 初喪費用이나 葬事의 用役을 모두 國家에서 支給하여 그 忠誠을 밝혀 주라.」고 하였다.

다음 해 辛未(1631)年 2月 16日에 楊根의 淸江公山所 왼쪽 長坐의 언덕에 장사 지내었는데 이때의 자세한 경위가 淸江公의 墓碑에 갖추어 실리어 있다.

공이 벼슬살이 할 때에 自己 몸 가짐을 反省하면서 아랫사람을 단속하고 法을 지키

고 職務에 忠實하니, 간사한 무리들이 기를 펴지 못하였고 비록 嚴한 上官이라도 自身의 私情을 채우기 爲하여 公의 말을 조리들림 할 때에는 내어 쫓지 않은 例가 없었다.

西原縣監으로 있을 때 하루는 물새들이 城中으로 모여 드는 것을 보고 公이 命을 내리어 畝를 修整하고 田을 修繕하고 田을 修繕하더니 바로 뒤에 큰 將마가 저서 耕地와 집이 모두 물속에 잠기었으나 城은 무너지지 않아서 百姓들의 피해가 없었으니 미리 防備한 때문이었는데 온 境內가 神明이 通하는 어른이라고 칭송하였다.

平壤은 家屋들이 서로 종종히 불어 있고 어영에는 불이 불기 쉬워서 해마다 火災가 심하였다. 公이 이 고을(庶尹으로)에 赴任하여 기와장(匠)이나 용기장이를 위하여 그 稅金을 減하여 값을 싸도록 하여 주니 百姓들이 즐겨 이 기와를 사들여 쓰니 一年 뒤에는 기와집이 半이 넘었다. 기와 이은 집에서 무명으로 稅金을 받아서 百姓이 別 稅金으로 代充시키니 公의으로나 私의으로나 모두 救濟되었다.

癸丑(1613)年 獄事(金梯男이 永昌大君을 推戴한다고 誣告하여 일어난 獄事)에 간사한 무리가 公을 시기하여 法을 어기어 가면서 罪를 疊으로 귀향 보내니 곤란하고 가난하기는 더욱 甚하였으나 그 志操와 言行은 조금도 變함이 없었다.

이때 流言蜚語가 길목마다 나돌아서 西宮(仁穆大妃)이 弑害 되었다는 所聞이 있었다. 公이 素服으로 外地에 있었는데 白沙李公(恒福)이 廢母를 諫하다가 罪를 얻었다는 말을 公이 上疏를 올리니 極烈한 語調로 一貫되어 있음으로 縣史가 敢히 받지 못하였다.

公이 答답하고 슬픈 나머지 물에 빠져 죽으려 하였는데 집사람이 그 기미를 알고 救하여 이에 無事하였다. 癸亥(1623)年에 反正이 後 學舍으로 불려 들어 갔다가 바로 軍器寺 正으로 승진되었고, 玉堂에 選拔되어 들어 갔다가 命(御史)을 받고 嶺南에 내려가서 民情을 살피었는데 미처 돌아 오기전에 忠淸道 觀察使로 任命되었다. 그 뒤 한 달 만에 李适이 叛하여 임금께서 公州로 避難하시니 公이 밤낮으로 正성을 다하여 大事에 결핍함이 없게 하였더니 慰勞의 뜻으로 嘉善大夫로 陞級시켰다.

丁卯(1627)年에 西虜가 쳐들어 와서 임금께서는 江華로 피난하시고 世子가 委任을 받아 南下하자 公이 모시고 全州에 이르렀는데 이때에 流言蜚語가 나돌기를 敵軍이 깊어 쳐들어왔으므로 海上(섬)으로 移避하려 한다고 하니 公이 江都에서 한 발작도 더 멀리 떠나서는 아니 된다고 역설하고 또 東宮(世子)께 들어가 뵈고 힘을 다하여 軍士를 調發하여 구원하러 갈 計策을 力說하였다. 뒤에 임금께서 이 消息을 들으시고 매우 아름답게 생각하여 특별히 虎皮와 鹿馬(宮中에서 기르는 말)를 하사하여 褒獎하였다.

江陵風俗에 財役(契?)을 設置하여 運營하고 있는데 가난한 百姓들이 이 負擔을 견디지 못하였다. 公이 土豪들을 불러 이 制度를 嚴禁하기로 約束을 하고 여기는 者는 法에 依하

여 다스렸더니 한달이 못되어 이 風俗이 고쳐지니 老人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우리 고을에 옛날부터 行政 잘하는 원님이 많이 있다가 갔지만 이 어른 같은 이는 前에는 들어 본 일이 없다.」고 하였다.

公이 西原縣監으로 있을때에 親舊인 宋象仁이 그 아버지의 表文(임금께 올리는 글) 內容이 誣告를 當하여 잡혔고 장차 死刑을 받게 되었는데 公이 이를 爲하여 上疏를 올리어 그 억울한 것을 아뢰었더니 方伯(監司)이 進達하기가 두려워서 덮어 둔 일이 있는데 이것이 問題가 되어 觀察使가 罷免되어 집으로 돌아갔고 宋氏는 事件뒤에 이어서 觀察使로 赴任하였는데 이 분은 壬辰亂에 殉節한 東萊府使 宋象賢의 동생이었다. 그(宋)가 벼슬 자리에 있을 때의 言行이 公과 비슷하였지만 宋公은 威嚴을 주로 하였고 聰明한 슬기로 대쪽같이 결단하거나 선비의 風度에 어긋나지 않게 處理하는 역량은 公만 못하였다.

公의 家門은 代代로 節義에 살고 義理에 죽는 것을 家訓으로 서로 이어나갈 것을 기약하다가 모두 世上을 떠나고 世上을 떠난 뒤로는 집안에 남은 財産이라고는 없었으며 殮할 때부터 葬禮치루는 일까지 남의 도움을 얻어야 하였고 또 이 일에 協力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다.

아아! 애석한지고 슬픈지고. 夫人은 義城金氏이니 兪知 纘祖의 딸인데 아들 三兄弟, 딸 兄弟를 두니, 이들은 顯基, 道基, 元基이고 맏 딸은 洪九疇에게 시집 갔는데 公보다 먼저 世上을 떠났고, 둘째는 沈光泗에게 시집갔다. 道基, 元基와 洪氏, 沈氏에게 子女가 있으나 모두 어리다. 이어 銘을 다음과 같이 엮는다.

우뚝 할손 淸江이어 文武가 兼全인데 猜忌와 妨害만나 지닌 抱負 다 못 펴니 後嗣에서 받은 값음 公이 많이 차지 했네. 하늘에서 타신 性情 바르고도 모 나שר라. 눈 보다도 潔白하고 金石보다 더 剛했네. 地方 治績 前例없고 떠나신 뒤 빛 더 났네. 王의 잘못 忠諫하여 두 奸臣이 除去되니 하늘도 公 말이면 번개 치듯 施行했네. 슬프다. 公의 正義 옛인들 뉘 벗하리. 여기 墓碑 높이 서니 앞에는 물, 뒤는 高峰, 行蹟을 銘에 담어 後世까지 알리려네. 友人 安東 金尙憲이 지음.

（原文）

公諱命俊字昌期咸鏡北道兵馬節度使 贈議政府領議政清江李公諱濟臣之第四子也清江公有文武大才不究厥施至今士大夫追數 先朝人材可任大事者清江必在其間清江之沒公年十二行喪盡禮受業月川李公廷範白沙李公恒福長遊牛溪成先生門下學有師法粟性剛正志堅金石論事是非理當否一定於內千萬人不能移也見有爲正爲不正者不以其人貴勢孤賤而白黑之甚辨也於進退辭受之間心一毫不安不苟處也蓋其行有過而無不及者焉年二十九舉進士後三年癸卯庭試壯元歷成均館典籍司憲府監察禮兵刑戶四曹佐郎知製 教春秋館記注官高山道察訪德山西原二縣監平壤府庶尹司憲府掌令軍器寺正弘文館修撰校理應教忠清道觀察使刑曹參判戶曹參判全州府尹江陵大都護府使司諫院大司諫兵曹參判年五十九卒位祿食三十年而衣服不完妻子恒有飢色公之自江陵歸實 今上卽位之八年也上疏極論時政闕失指斥 上躬皆言人所不敢言又曰臣聞一二朝臣寅緣曲徑私進女子曲徑一啓凶國之兆請出之疏入 上卽出其女特 除公大司諫己而大臣因公疏請治媒進之人 上怒辭旨己嚴朝臣皆懼公不拜 命復上疏言益切 上意感悟手札慰勉公及出尋以病辭拜兵曹參判又辭歸臥陽川之箕箒草屋數間不蔽風雨公嘗號潛窩至是名其齋曰退思識不忘君也病軀遺命儉葬貽書親友託其諸子屏婦女俯然而逝是年十二月十二日也計聞上下教曰李某盡心國事有意格君不幸殞逝 豫甚惜之其喪費凡役官給之用表其忠明年辛未二月十六日葬于楊根某山清江墓左負良之原世次具載清江墓碑公所居官檢身東下守法張職奸猾氣死雖嚴上官無不黜己私徇公之言西原一日水鳥集城中公下令繕舊防設 儲待未幾大水田廬盡沒而城不壞民不病以先有備也一境稱神明平壤屋比而苦火歲爲灾公至官爲陶瓦而賤其估民樂爲市一歲瓦屋過半收其布以代民租公私俱濟癸丑之獄奸黨忌公執法竄盈德因憂益深而視其操履無小變道路流言 西宮遇弒公素服居外及白沙李公諫廢 母得罪公上章極言縣吏不敢受公悲傷鬱悒有懷沙之意家人覺之救乃止癸亥反正以掌令召俄陞軍器寺正選入玉堂受命往嶺南察民隱未還擢界湖節後一月李适叛 上如公州公夙宵殫竭無乏大事備見慰勞進嘉善大夫丁卯西廡大入 上幸江都 世子受委南下公陪至全州訛言寇深議欲移避海上公信言不可遠江都一步入見 東宮又力陳調兵赴援之策後 上聞甚善之特 賜虎皮鹿馬以獎之江陵俗設財役貧小民不堪公召土豪立禁約違者正法葺月遂大革父老相謂吾州古多惠政如公前所 未聞公在西原友人宋象仁其親表遭誣告連逮將死公爲疏訟其冤方伯懼寢不聞而坐此竟罷歸宋後亦至觀察使卽壬辰死事東萊象賢之弟也其居官制行與公略相同而宋主威嚴至於聽明剖斷文至以儒雅顏遜於公世以伏節死義期之相繼而歿歿後家無餘資自含殮以往皆待人以舉又無不同焉嗚呼其可惜也其可哀也夫人義城金氏金知續祖之女三男二女顯基道基元基女適洪九驛先公歿次適沈光泗道基元基洪沈各有出俱幻銘曰

嶽嶽清江文武兩有關不盡善以發其後惟公嗣之性情直方匪雪雪白匪金金剛郡續前最臬政後肅緘章格王二妖去側至言動天雷電爲收嗟公秉正在古誰伴有石屹立前滄後蠹載銘來世之囑友人安東金尙憲撰

清白吏制度的 史的 考察

清白吏의 淵源

李 章 熙 (아주대학교수)

上古 이래 우리 역사를 더듬어 보면 국가에 봉직하던 관료들을 크게 淸吏와 濁吏群으로 양분할 수 있었는데, 전자는 良吏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과 가정의 희생을 감수하던 사람들이며, 후자는 이와는 반대로 일신의 영달과 일가의 번영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외면하던 부류들로서 汚吏, 酷吏, 臟吏가 이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 어느 사회건 양리가 많이 배출되면 나라는 태평하고 국민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며, 탁리가 많이 들끓으면 나라가 어지럽고 사회가 혼탁하여 국민들은 불안에 떨게 마련이었다. 국가가 양리를 배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시대는 興隆했고 그럴 기력을 상실했던 때는 쇠퇴했던 것도 그러한 때문이었다.

그런데 양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양리를 우리는 ‘清白吏’라고 부른다. 청백리의 선반이 제도화되었던 것은 조선왕조 건국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청백리의 연원을 찾아 보면 상고시대로 올라간다.

三國이 鼎立하고 있던 신라 진평왕때 화랑도였던 劍君이 장리의 유혹을 뿌리치면 자기의 목숨이 부지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거절하여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은 廉謹吏의 표본으로 청백리의 선구적 인물임에 틀림없다. 조선왕조 초기에 편찬한 「고려사」를 보면 〈列傳〉에서 庾碩 등 다섯 사람의 양리를 소개하였다. 이 역사책이 선비의 廉潔을 이상으로 삼던 조선시대에 편찬된 것이다. 조선조의 입장에서 양리의 기준을 정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양리의 미담이 후세에까지 전해져서 史乘에 오를수 있었던 것은 고려시대에 있어서도 청렴결백한 관리를 높게 평가했던 것만은 사실이며 일반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도 틀림없다.

단지 고려시대의 청백리라고 할 수 있는 ‘양리’의 선반을 국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였던 것 같지는 않으며 청백리가 하나의 제도적인 명칭으로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청백리 제도의 시행배경

청백리제도가 조선조에 들어와서 비로소 제도로써 채택,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조의 성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조선왕조를 이끌어가는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세력이 선비 계층이었는데, 이들 선비의 守則이 바로 四維이다. 사유란 管子에 나오는 禮·義·廉·恥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선비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지켜야할 네가지 법도였다. 이 네 법도중에서도 廉·恥를 더욱 중시하고 염치를 저버렸을 때는 평생 사람구실을 할 수 없도록 국법으로 정하여 선비의 非理를 경계하였다.

그러므로 臧吏에서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들과 손자까지도 議政府, 六曹 등 중앙의 淸顯職과 지방의 수령직도 줄 수 없도록「經國大典」에 명문화하였다.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는 세상에 부정과 비리가 없을 수 없고 汚吏와 臧吏, 酷吏가 사라질리 없었다. 그리하여 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의 하나가 청백리제도의 채택이었으며 이의 활용으로 관리들의 비행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청백리 선발기준

청백리를 선발하는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가가 청백리선발의 필요성을 느낄 때 국왕이 청백리라는 명령을 의정부에 내리면 의정부의 세 정승과 육조의 판서들이 논의하여 각도에 공문을 하달하고 청백리로서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을 추천하여 보고토록 한다. 여기에는 현직 관리뿐만 아니라 전직 관리나 이미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시켰는데 이러한 진행은 주로 이조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청백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지방관만이 아니고 중앙 관료들도 해당되며, 중앙관과 지방관을 막론하고 2품 이상이면 청백리를 천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미 청백리로 추천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식생활에서 이미 그가 청백하다는 명성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라 그들을 가려내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청백한 관리라하여 무조건 전원을 청백리로 뽑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보면 후보자중에서 청백리를 연선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서 논의가 거듭되기 일췌였다.

청백리의 선발기준은 法典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확실한 기준을 가름하기는 어렵다. 다만「조선왕조실록」에서 왕왕 보이는 청백리 선발관계 기사를 보면 벼슬아치를 맡은 바 공무에 충실하며 정해진 國祿이외에 公家나 私家에 일체의 폐를 끼치지 않는 자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연산군 때 청백리의 제 1인자로 뽑혔다고 하는 申堧의 史實에서 우리는 청백리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그가 일찌기 강릉판관이 되어 아들 하나를 데리고 갔으나 그 아들이 고을 사람들에

게 폐를 끼칠 것을 염려하여 관사 밖에는 잠시도 나가지 못하게 하였던 관계로 고을사람들이 관관의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했다고 한다. 또 어느날 춘천에 살던 다른 아들이 부친을 뵙기 위해 강릉으로 가는 길에 대관령을 넘을 즈음 길에서 진논개비를 만나 타고가던 말이 미끄러져 다리를 절자 할 수 없이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게 되었는데 도중에서 역졸 한 사람을 만났다. 역졸은 그가 관관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말하기를 ‘내 말이 빈말이니 그것을 타고 가라’고 하였으나 자기 부친에게 꾸중들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그의 강령을 뿌리쳤다고 한다.

위의 내용은 청백리 일가의 한 단면을 나타낸 것이지만 청백리의 길을 걷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녹봉을 받으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당시의 녹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양인데 우환 등의 큰 액운이라도 겹치면 곤경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것이 당시의 벼슬아치였다. 이러한 신고를 끝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청백리였다.

청백리는 생존시에 선발되는 일도 있고 죽은 뒤에 피선되는 경우도 있는데 살아서 청백리가 되는 것은 청백리라 부르지 않고 廉謹吏라 부르며, 죽은 뒤에 수록되는 것을 청백리라 불렀다. 따라서 엄근리가 죽은 다음에는 청백리로 불리지므로 사실상 엄근리나 청백리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때로는 청백리가 될 수 없는 엄근리가 있었다. 이것은 조선 영조 때의 일인데 양리의 사기를 돌아주기 위해 대신들로 하여금 각기 2인의 廉謹吏를 추천하여 포상하라는 왕명이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엄근리는 후일 청백리가 될 수 없는 양리를 말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을 명칭 그대로 엄근리라 부르면 후일 그들이 사망하면 청백리로 혼동하기 쉬우니 다른 명칭으로 부르자는 의견이 있어 결국 엄근리가 아닌 廉吏로 호칭을 바꾸게 되었다. 여기서 보듯이 엄근리나 청백리나 양리라해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에서 배출된 청백리(엄근리)의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는 매우 힘들다. 더우기 생존시의 엄근리가 몇명이었는지, 사후에 청백리가 된 사람이 얼마인지 그 수를 밝혀내기란 용이하지 않다. 그것은 「조선왕조실록」에 청백리로 錄選된 명단이 그때그때 전부 나와 있는 것도 아니며 녹선된 인물의 개인 저술이 전부 전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典故大方」에 수록된 조선시대 청백리의 王代別 선발인원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이 표에서 보면 조선왕조 27대 519년간에 218명의 청백리가 배출된 셈이다. 이 인원을 조선왕조에서 배출한 실제 인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이상이었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으나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염근리와 청백리 子孫의 特典

염근리는 살아있는 청백리라 생존시의 본인이 특전을 받게되고 청백리는 이미 사망한 뒤에 추록된 것이라 그 자손이 특전을 누리게 된다.

염근리를 褒獎하는 방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승진을 시켜주는 예와 상품을 하사하는 것이 통례였다. 승진에도 한 계단 올려주는 경우와 몇 계단을 일시에 특진시켜주는 예도 있었으며, 상품으로는 주로 唐表裡를 하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러나 승급이나 하사품을 받는 것도 영광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보다도 살아서 염근리로 선발되었다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一門에 영광이었다.

왕 대	재위기간	청백리수	왕 대	재위기간	청백리수	왕 대	재위기간	청백리수
태종	7년	5	연산군	12년	0	숙종	46년	22
정종	2년	0	중종	39년	35	경종	4년	6
태종	18년	8	인종	1년	0	영조	52년	9
세종	32년	15	명종	22년	45	정조	24년	2
문종	2년	0	선조	41년	27	순조	34년	4
단종	3년	0	광혜군	15년	0	현종	15년	0
세종	14년	7	인조	27년	13	철종	14년	0
예종	1년	0	효종	10년	0	고종	43년	0
성종	25년	20	현종	15년	0	순종	4년	0

청백리 자손에게 특전을 준 것은 조선초기부터였으나 활발하지는 않았다. 중종 때 崔淑生이 書講席上에서 "藏吏나 汚吏의 자손은 모두 기록하여 벼슬에 중용하지 않는 법을 정하였는데 반해서 청백리의 자손은 褒獎의 법이 없으니 이는 聖代의 闕典" 이라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청백리의 자손에게 벼슬을 주자는 廷論은 중종때부터 활발해지나 실상 叔用된 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대체로 청백리자손에 주어지는 특전은 嫡長 후손에게 주어진다. 嫡長에게 주어지는 것은 청백리인 조상의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뒷받침도 겸할 수

있었던 때문이다. 만약에 적장손이 끊어지면 제사를 모시는 支孫을 대신 사용하였으면 그밖에 자손에게는 벼슬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청백리의 후손이라 해서 적장손이면 누구에게나 벼슬을 준 것은 아니었다. 벼슬을 할만한 최소한의 학문과 덕망을 갖추지 못하면 벼슬을 주기를 꺼려하였다. 그것은 당초에는 낮은 벼슬을 주지만 차츰 승진하여 敎民官이라고 되면 백성을 다스릴만한 학식과 덕망이 요구되었던데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중신들입에서 적장손이 아니더라도 4대가 지나면 '적손이나 지손을 가릴 것 없이 가장 어진자를 택하여 1대에 한사람씩만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청백리의 자손에게 벼슬을 내리는 목적이 다른데 있었던만큼 수용되지 못하고 적손이 없는데 한해서 1대에 한해서 어진이 한 사람을 뽑아서 벼슬을 주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조선후기로 들어서면 조선 전기와는 달리 청백리의 처자나 후손들 가운데 가난이 심하여 끼니를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청백리의 처자나 후손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당 그럴 수 밖에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끼니를 잊지 못하고 굶는다는 것은 청백리를 권장하는 정치풍토에서 나라가 방관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호조로 하여금 그러한 실정을 조사하여 보고토록하고 진흥청에 명하여 그들을 구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가 염근리에게 승진을 시켜준다거나 하사품을 내리며, 청백리의 자손에게 주고 구휼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은 그 목적이 다른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직에 있는 벼슬아치나 장차 벼슬할 사람에게 廉恥를 아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후대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본받아서 더욱 훌륭한 청백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서였다.

청백리精神이 사회에 미친 영향

청백리의 청렴 강직하고 고결한 정신은 선비 정신의 精粹라고 할 수 있다. 청백리는 처음부터 자기가 후일 청백리로 선발될 것을 목표로 삼고 청백리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愛民 爲國의 입장에서 서서 공무를 처리했으므로 항상 자기 일신이나 가정을 돌볼 겨를을 갖지 못했다. 어찌보면 청백리는 가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가장이었는지도 모른다.

청백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외롭고 험난한 길이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고 淸吏보다는 濁吏가 많은 법이니 청리가 타리의 숲을 헤쳐나가기엔 온갖 모략과 질

시를 감내하지 않으면 헤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가 계속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탁리의 비행을 들춰낼 수 있었던 청리의 용기가 있었던 데서 가능했다.

청백리는 청렴 결백의 위업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앞장섰으며 吏道精神을 빛내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왕조 14대왕인 선조까지를 조선전기, 그 이후를 후기로 볼 때, 앞에 나온 왕대별 청백리의 배출표를 보면 후기보다 전기에 더 많은 청백리가 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선왕조의 성쇠와도 연관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또 조선전기와 후기에 있어서 국가의 청백리 선발경향을 보면 대체로 전기에는 청백리를 우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汚吏나 臈吏가 맥을 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간 반면, 후기에는 오리가 강리가 극성하여 이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청백리를 선발하였고, 또는 그 자손을 우대하려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민족전통유산 가운데는 길이 보존해야 될 것도 있고 개량해서 시의에 맞도록 적당히 배합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상고시대부터 맥맥히 흘러온 우리민족의 청백리 정신은 千古不易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으로서 현대사회에서는 물론 미래까지 공직자의 龜鑑으로 오래오래 계승해야 될 것이다.

(季刊監査 1987.6 여름호에서 轉載)

李命俊은 直言之巨

— 仁祖大王은 直言之 崇獎 —

내가 어릴 때 어른들 모임에서 그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趙龍州 綱과 李潛窩 命俊이 仁祖 때에 入待해서 御殿에서 極言으로 임금의 잘못함을 말했다는 것이다. 즉 「殿下 宮中에서 某日 某時에 어떠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고 대들었다. 임금이 이 핑계저 핑계해서 응답안한즉 재차 삼차 말씀을 올려서 仁祖가 반드시 잘못했다는 말이 떨어져야 비로소 불러나오고 했다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말로 敢言하는 사람이었다.

仁祖大王은 直言之 崇獎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능히 임금님 면전에서 이렇게 直言을 할 수 있었다. 만일 이 두 사람이 다른 임금 때에 이렇게 했더라면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東平尉公私聞見錄에서)

알찬 結實의 해로 指向

— 郡民과 出郷人士의 參與와 衆智로 —



禮山郡守
權五昌

우리에게 부푼 기대와 希望을 가득 담은 辛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希望찬 새해에 온 郡民의 家庭에 健康과 幸運이 가득하기를 眞心으로 祝願 합니다.

아울러 지난한해 온 郡民의 積極인 참여와 協助 그리고 聲援에 힘입어 알찬 軍政의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感謝를 드리면서 새해 辛未年에는 그동안 이룩한 郡民의 和合을 바탕으로 모든 力量과 智慧를 모아 郡民福祉 贈進에 더한층 노력할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對外的으로는 北方外交의 成功의 수행과 東歐 여러나라의 修交를 통하여 國際인 地位向上과 더불어 지난 날의 감회와 함께 感激의 마음이 솟아 오르는 激動的 時代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國內으로는 國際收支赤字와 우루과이 協商에 따른 농촌문제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道德性的 타락, 文化的 偏向性等이 深化된 不確定的인 狀況에서 今年 한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다져진 기틀을 바탕으로 우리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을 私心없는 슬기와 忍耐로서 克服하여 우리나라가 政治, 經濟, 社會, 文化等 모든 면에서 先進隊列에 進入하는 알찬 結實의 한해가 되도록 그 어느때 보다도 더 많은 지혜와 노력으로 헤쳐 나가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一連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더 알찬 結實을 맺기 위해서는 어느 몇사람의 努力만으로는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온 郡民과 出郷人士 여러분 積極인 參與와 衆智를 모아 성원해 주실때 우리 郡은 보다 活氣있게 發展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성원해 주신 정성이 추호도 헛되지 않도록 우리郡이 서해안배후 휴양관광지역으로 발전되도록 더한층 노력할것을 다짐드리면서 郡民 여러분의 家庭에 幸運이 充滿하시기를 祈願하면서 새해 人事에 가뭇합니다.

感謝 합니다.

활기찬 한해를 祈願

— 타락과 부패선거를 청산 —



國會議員
朴炳善

희망찬 신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모두에게 새해는 그어느해 보다도 중차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해라 생각하며 군민여러분과 더불어 희망과 기대속에 맞이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0년도는 큰기대와 아픔을 함께 치르게 한 다사 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한·소 정상회담의 성취와 더불어 대내적으로는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의한 강대국들의 끈질긴 국내시장 개방 압력에 온국민이 시달리기도 한 해였습니다.

이와같이 지난해는 기쁨보다는 아픔을 많이 안겨준 한해였습니다만 지난날의 문제는 이제 역사의 밑거름으로 삼아 우리의 밝은 지표로 삼아야 하였습니다.

새해에 있을 최대의 과제는 30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금년과 명년에 실시될 지방자치 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치사상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되는것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지난날의 금전으로 얼룩진 타락과 부패선거를 청산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룩하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루어 민주주의 실천 기본의지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질서와 안정이라는 틀 속에서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릴때 비로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신미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모두 밝은 앞날을 바라보며 희망찬 전진의 걸음을 새롭게 다져나갑니다.

끝으로 예산군민 모든분께 새해에는 보다 더 건강하시고 밝고 활기에 넘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民主警察像을 定立

— 地自制 選舉는 明朗한 秩序를 維持 —



禮山警察署長
趙 德 浩

大望의 辛未年 새 아침을 맞이하여 禮山 郡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고 이고장의 秩序維持에 渾身의 努力을 다하여 誠實하게 奉仕 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警察은 犯罪와의 戰爭으로 余念이 없었던 民生治安의 한해였다고 생각 합니다.

10.13 特別宣言 以後 사상 유례없는 犯罪와 暴力에 대한 戰爭宣布는 社會病廢의 根本的인 剔抉을 爲해 全警察官이 犯罪追放 80日 作戰을 성공적으로 完遂하여 地域安定을 이룩할 수 있었음은 郡民 여러분의 全幅的인 聲援과 協助에 힘입은 結果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激變하는 國內外情勢 속에서 우리 警察의 治安需要는 날이 갈수록 增加하는 趨勢에 있고 活發히 展開 되고 있는 北方外交는 우리 國民들의 對共 警覺心を 鼓吹시켜 精神 武裝을 鞏固히 해야할 時期라고 生覺 합니다.

北韓은 表面上 南北 總理會談에 應하고 있으면서도 北韓의 金日成은 南韓 赤化統一의 忘想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實情임을 直視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警察은 負何된 所任을 完遂하기 爲하여 郡民 여러분께서 安心 하시고 生業에 從事 하실 수 있도록 民生治安과 不法 集團事態의 鎮壓等 法秩序 確立에 渾身의 努力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未洽한 點이 많이 있을 것으로 生覺 합니다. 더욱이 새해에 모처럼 실시되는 地方自治制 選舉에는 名實共히 明朗하고 秩序있는 公明 選舉가 이룩 될 수 있도록 嚴正한 法秩序 維持에 最善을 다 하겠으며 새해에는 더욱 奮發하여 全職員이 渾然一體가 되어 郡民의 愛情과 聲援 속에 正直 하고 誠實 하게 奉仕 하는 民主 警察像 定立과 民生治安 確保에 最善을 다 할것을 다짐하면서 郡民 여러분의 積極的인 協助를 當付 드립니다. 끝으로 希望찬 새해에는 郡民 여러분의 뜻 하시시는바 所望이 成就 되시고 健康과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 합니다.

全人指向의 教育課程 運營으로

— 道德的 行動으로 習慣教育에 힘쓰는 —



禮山郡教育長
李 盈 福

14萬 郡民, 教育家族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일 뜻대로 되시고 福 많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지난해에는 빈틈없는 보살핌으로 으뜸가는 禮山教育의 發展을 보았습니다. 眞心으로 謝意말씀을 올리면서 새해 教育設計를 같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첫째, 道德的 行動의 習慣化指導에 힘써 靑少年을 굳세고 바르게 키우고자 합니다.

◇基本生活規範 行動習慣化에 對한 意識轉換을 爲해서 안방에서부터 父母兄弟間에 對話, 協議, 意見나누기로 民主市民生活 訓練, 孝道, 秩序, 長幼有序, 勤儉節約, 國產品愛用 等 傳統美風良俗의 暢達과 性格은 서둘지 않기 한번더 생각해보기 및 立志人間 等으로 豊富하고 餘裕있는 人間性을 기르고,

◇地域共同體 教育機能 擴大를 爲한 父母教育에 힘써 既成世代의 劃一的인 思考方式, 非合理的인 行動을 바꾸고 頽廢한 家庭教育機能의 恢復, 子女行動修正技法에 關한 相互研究와 討論으로 學生의 自我正體意識의 形成으로서 바른 性倫理指導, 職業準備 및 社會適應指導 葛藤에서 自己行動 選擇力을 갖는 判斷力을 길러서 規範生活를 하도록 하는데 注力코자 합니다.

○둘째, 全人指向의 教育課程運營으로 社會變化에 適應할수 있는 學生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思考力을 阻害하는 感覺文化에서 벗어나고 卽興的인 心性刺戟에 빠져드는 映像媒体年活에서 讀書印刷文化로 轉換하고 素質啓發, 創意力을 기르는 多様な 特別活動運營, 傳統藝体能指導로 韓國民의 魂기르기 그리고, 實力으로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人格으로 尊敬받는 좋은 先生님에서 훌륭한 先生님으로서의 自我研鑽의 風土改善에 힘쓸것입니다.

○셋째, 快適한 學校環境造成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學校施設을 즐겁고, 便利하고, 文化的 雰圍氣로 바꾸며 다듬어서 福祉環境으로 꾸미고, 有害環境을 淨化하고 教育現場을 家庭, 學校, 社會教育 三者가 平生教育場으로 連繫되고 母校發展을 爲한 同窓會運營의 活性化, 校史館모습 갖추기等 傳統있는 우리 學校 가꾸기에 힘써서 자랑거리가 많은 地域社會學校로서의 구실을 다하고자 합니다.

墨郷의 自負心으로 精進

— 秋史 追慕書藝白日場은 宿願事業 —



禮山書藝研究會長
高 鳳 柱

다같이 힘씁시다.

墨郷의 고장에서 書藝로 研磨한다는 自負心으로 禮山書藝研究會를 再發足 시켰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지역에서 자랑스럽게도 秋史先生追慕全國書藝白日場이 開催되어 書藝人的 한사람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첫발을 내디딘 全國書藝白日場은 이제 年輪을 더할수록 알찬 大會가 되어 줄것을 期待하며 禮山書藝會員도 분발하여 全國의 모범이 될수 있는 길을 開拓 해 가면서 보다 內實을 期하는 모임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할것을 다짐하며 새해에도 희망찬 한해가 되도록 다같이 힘씁시다.

時友會館 建立이 所望

— 뜻있는 분들의 協力を 喝求 —



禮山時友會長
李 起 鳳

辛未年을 맞이하여 알차고 힘찬 한해가 되어주시길 祈願합니다. 지난해에 全國時調競唱大會를 開催하는 에에는 文化家族 및 有關機關長任들의 높은 뜻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저의 나이 86세로서 소망이 있다면 禮山郡 時友會館을 建立하는 문제만이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여러 뜻있는 분들이 協力하고 文化家族 여러분의 지극한 협조를 기대하는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면모로서의 출발

—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도록 노력할터 —



예 산 사 우 회 장
신 현 성

지난 한해도 동분서주하며 전회원이 열심히 활동하였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한해를 마무리 한듯 싶다. 항상 아쉬움속에서 새로운 창조와 현실을 찾아 내야만 하는 사진의 사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케 한다.

시대의 증인으로 후세에 허위와 진실을 전달할수 있는 기록성과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와 오묘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할수 있다는 것은 사진만이 가질수 있는 독특한 분야일 것이다.

신년에는 전회원이 비장한 각오로 출발하여 멋진 회원전을 개최하여 건군민이 볼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사진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며 우리고장의 변모하는 모습과 발전상을 낱낱이 기록하여 귀중한 자료가 될수 있도록 보존하며 또한 순수예술면에서도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수 있도록 한층 노력할 계획이다.

다사다난 했던 지난 한해

— 도 경연대회 대상을 계기로 더욱 노력할터 —



매 현 합 창 단 장
박 응 숙

이 고장 문화발전의 기여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매년 윤봉길의사의 거룩한 뜻을 상기하며 아름다운 선율의 화합으로 그 뜻을 이어가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던 1990년이 저희 매현합창단에게는 어느때보다도 분주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느곳 어느때에도 불완전함과 갈등은 산재하고 있어서 그것을 참고 견디며 가치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의 힘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90 충남도 경연대회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분발하는 매현합창단이 될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도와주신 후원회 회장님과 여러방면으로 문화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모양으로 빛날때까지

— 꾸준히 갈고 닦는 탁마가 될터 —



탁마독서회장
박형숙

나뭇가지에 힘겹게 매달린 몇잎의 이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합니다.

보리차가 끓는 난로 옆

이제, 단혀진 창 이편에서 안으로의 성숙을 꾀해야 할 계절.

독서는 절대로 우리의 기본전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오히려 우리의 정신을 집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무의미한 생활을 배우고 걸치장의 위로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더욱 높고 더욱 충실한 의미를 부여하는 조력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든 헤세의 말을 되짚으며 제모양으로 빛날때까지 꾸준히 갈고 닦는, 그래서 지금 부여된 길을 한결같이 똑바로 나아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길과 비교하거나 하지 않는 의연한 탁마이고자 합니다.

늘, 열심인 회원들과 이 고장의 귀여운 규수들이라 아껴주시며 보살펴 주시는 이항복문화원장님께, 세련된 충고로 격려를 아끼지 않는 예산 청년문화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센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풀

— 새해는 관객과 공감대 연극할터 —



극단 "소란" 회장
김경숙

풀은 바람보다 먼저 쓰러지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1990년의 연극을 되돌아볼때, 차라리 차갑고 목마름이었다.

좀더 좋은연극, 관객과의 공감대 형성을위해 마련했던 제1회 워크숍공연과 제3회 정기공연을 마치면서 관객의 연극 이해부족과 연극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드물음을 느낄수 있었다.

안타까움. 연극을 통한 좀더 많은 공감대와 관객과의 자연스러운 어우러짐의 필요성으로 1991년에는 '90년에 못다했던 보다 많은 청소년극을 통해 예산연극 대중문화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풀이 걸로보이는 모습은 나약하고 바람에 쓰러지기도 잘하지만 아무리 강한바람에도 부러지지않는 강하고 끈끈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극단 "소란"도 풀과같이 끈끈한 생명력으로 꾸준히 예산연극문화보급을 위해 노력할것입니다.

傳統의 接木 作業은 힘겨워

— 내고장에 素地마련하여 지킬터 —



禮山傳統工藝同人會長
金 啓 煥

傳統을 오늘에 接木하려는 作業은 무척 외롭고 힘이 듭니다.
이 고달픔이 이제 10年 이란 年輪이 쌓여 그간 닦아온 傳承의
깊이 얼마나 再顯이 되었는지.....
새해에도 기술을 연마하여 보다 나은 作品을 여러분들께 선보이
고자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이오니 지켜보아 주시기 바라며
오직 傳統을 지켜 後孫에게 모범이 될수 있는 素地를 마련 하겠습니다.
오는 辛未年도 보람을 함께하는 새해가 되어 줄것을 기원합니다.

文化의 고장 傳統을 이어갈터

— 內的成長을 爲해 創作을 繼續 —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장
김 명 배

특별한 의미 속에서 신년을 맞이할 때, 기쁨과 희망은
더 특별하지 않을까 싶다. 그동안 우리는 예산미협이 나뉠대로
지역미술문화라는 씨앗을 심어 정성으로 가꾸어 왔다.

그 씨앗으로 부터 소담한 열매를 얻게 되었다.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따라서 금년은 다시 시작하는 출발원년으로 우리의 마음 각
오는 새롭다.

앞으로 과제는 중앙 미술문화의 보급과 확대를 통하여 예산
지역의 문화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다음으로는 능력있고 재능있는 후배양성에 노
력하여 유서깊은 문화고장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향시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내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부단한 창조의 작업을 계속할 것
이다.

秋史書藝 精神을 繼承

— 傳統의 科場을 揮毫大會로 再現

秋史先生 追慕 全國書藝 白日場



秋史 金正喜 1786年(正祖 10年 丙午) 6月 3日 이곳 新岩面 龍宮里에서 出生 하시고 1856年(哲宗 7年 丙辰) 10月 10日 돌아가신 先生이 法古創新의 精神으로 이룩한 秋史體의 書藝精神을 계승 발전 시키고자 마련한 秋史先生追慕全國書藝白日場이 燦爛한 가을 하늘 아래 先生의 故宅인 新岩面 龍宮里에서 400余

名의 많은 서예인 및 일반 人士들이 뭉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10月 28日 午前 10時 30分 부터 始作된 書藝白日場은 全國의 많은 書藝人들의 응모가 있어 지난 10月 15日 예선에서 漢文書藝部 44名 한글서예부 18名 文人畫部 9名 포함 71名을 선발하여 옛 科場을 오늘에 再現하는 白日場을 禮山文化院이 主管하는 가운데 마련 되었다.

秋史先生 墓前에서 大田市立燕亭國樂研究院 演奏團의 우아한 祭禮樂이 은은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初獻官 鄭漢模 大會長(秋史紀念事業會長·前文公長官)의 初獻으로 墓祭가 始作되어 亞獻官 權五昌(禮山郡守) 終獻官 鄭夏建(書藝家 代表)의 順으로 祭禮를 마치고 이어서 차일 아래 마련된 特設科場에서 本選(揮毫大會)이 進行되었다.

위대한 秋史先生의 서예정신을 계승하는 엄숙한 자세로 科生들은 本部에서 주어진 命題를 받았는데 漢文에는 先生의 글 『書法有長江萬里 書藝如孤松一枝』 한글부는 『화법은 장강이 만리에 뻗친듯하고 서예는 외로운 소나무 한가지와 같다』 文人畫部는 自由題로 90分의 주어진 時間을 진지하게 자기의 역량을 다



해 지정된 화선지에 작품을 수놓았다.

審査에서는 石峰 高鳳柱 (와병증물참) 剛菴 宋成鏞, 玉峰 趙基順, 月汀 鄭周相, 嘉軒 崔完秀, 松泉 鄭夏建, 圭堂 趙琮淑 等 일곱분의 심사위원이 진지하고 세심한 嚴選으로 우리 書壇에 새롭게 태어나는 書藝人을 배출하였다.



入賞者를 보면 次上에 漢文部 李長煥 (서울) 鄭榮采 (경기) 한글부 金順姬 (서울) 3名 次下에는 漢文部 鄭基浩, 金京泰 河顯, 朴洋潯, 宋根福, 한글부 張用男 6名이 入賞되었고 特選에는 全永夏外 9名 入選에는 鄭惠慶外 21名이 새로운 별로 탄생 되었다.



施賞式은 三絃六角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鄭漢模 大會長의 主宰下에 치러졌는데

애석하게도 이날의 大賞인 秋史賞 (壯元)은 심사위원 일치로 선발 되지 못하고 次上이 1點 더 높았고 壯元의 賞金은 다음해 (91年 6月 예정)에 보태어 주기로 하였다.

이날의 白日場은 午後 4時 30分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 秋史金正喜先生紀念事業會가 主催하고 禮

山文化院이 主管하였고 文化部, 韓國文化藝術振興院, 文化放送, 禮山部, 韓國文化院聯合會가 後援 하였다.

秋史書藝 精神을 繼承

— 傳統의 科場을 揮毫大會로 再現

秋史先生 追慕 全國書藝 白日場



秋史 金正喜 1786年(正祖 10年 丙午) 6月 3日 이곳 新岩面 龍宮里에서 出生 하시고 1856年(哲宗 7年 丙辰) 10月 10日 돌아가신 先生이 法古創新의 精神으로 이룩한 秋史體의 書藝精神을 계승 발전 시키고자 마련한 秋史先生追慕全國書藝白日場이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先生의 故宅인 新岩面 龍宮里에서 400余

名의 많은 서예인 및 일반 人士들이 뭉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10月 28日 午前 10時 30分 부터 始作된 書藝白日場은 全國의 많은 書藝人들의 응모가 있어 지난 10月 15日 예선에서 漢文書藝部 44名 한글서예부 18名 文人畫部 9名 도합 71名을 선발하여 옛 科場을 오늘에 再現하는 白日場을 禱山文化院이 主管하는 가운데 마련 되었다.

秋史先生 墓前에서 大田市立燕亭國樂研究院 演奏團의 우아한 祭禮樂이 은은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初獻官 鄭漢模 大會長(秋史紀念事業會長·前文公長官)의 初獻으로 墓祭가 始作되어 亞獻官 權五昌(禱山郡守) 終獻官 鄭夏建(書藝家 代表)의 順으로 祭禮를 마치고 이어서 차일 아래 마련된 特設科場에서 本選(揮毫大會)이 進行되었다.

위대한 秋史先生의 서예정신을 계승하는 艱속한 자세로 科生들은 本部에서 주어진 命題를 받았는데 漢文에는 先生의 글 『畫法有長江萬里 書藝如孤松一枝』 한글부는 『화법은 장강이 만리에 뻗진듯하고 시에는 외로운 소나무 한가지와 같다』 文人畫부는 自由題로 90分의 주어진 時間을 진지하게 자기의 역량을 다



해 지정된 화선지에 작품을 수놓았다.

審査에서는 石峰 高鳳柱 (와병중 불참) 剛菴 宋成鋪, 玉峰 趙基順, 月汀 鄭周相, 嘉軒 崔完秀, 松泉 鄭夏建, 圭堂 趙聰淑 等 일곱분의 심사위원이 진지하고 세심한 嚴選으로 우리 書壇에 새롭게 태어나는 書藝人을 배출하였다.



入賞者를 보면 次上에 漢文部 李長煥 (서울) 鄭榮采 (경기) 한글부 金順姬 (서울) 3名 次下에는 漢文部 鄭基浩, 金京泰 河顯, 朴洋滄, 宋根福, 한글부 張用男 6名이 入賞되었고 特選에는 全永夏外 9名 入選에는 鄭惠慶外 21名이 새로운 별로 탄생되었다.

施賞式은 三絃六角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鄭漢模 大會長의 主宰下에 치러졌는데

예석하게도 이날의 大賞인 秋史賞 (壯元)은 심사위원 일치로 선발되지 못하고 次上이 1點 더 늘었고 壯元의 賞金은 다음해 (91年 6月 예정)에 보태어 주기로 하였다.

이날의 白日場은 午後 4時 30分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 秋史金正喜先生紀念事業會가 主催하고 禮



山文化院이 主管하였고 文化部, 韓國文化藝術振興院, 文化放送, 禮山部, 韓國文化院聯合會가 後援 하였다.

受賞 作品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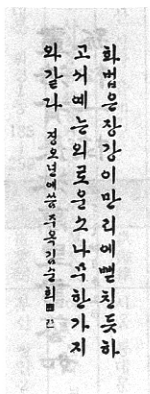


受賞作은 次上 李長煥外 2名 次下는 鄭基浩外 5名 特選에 全永夏外 9名 入選에 金義煥外 21名の 珠玉 같은 作品이 展示되어 觀覽者들의 찬사를 아낌 없이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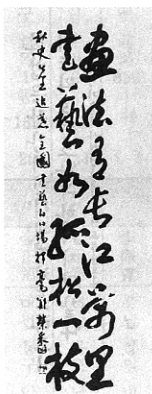
秋史先生追慕書藝白日場은 禮山文化院이 年來의 宿願事業이 었든마 權五昌 禮山郡

守의 특별한 배려로 치루어졌는데 이제 第1回大會를 盛況裡에 끝마치고 每年 계속하여 白日場을 開催할 계획인바 제 2回大會는 91年 6月 秋史의 生辰달을 즈음하여 다시 開催할 기획으로 進行中이니 明年에도 많은 書藝人들의 參與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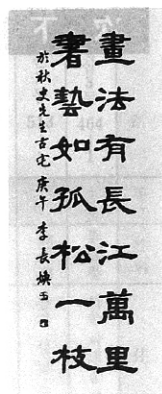
次 上



宋玉: 金 順 姬 (서울)



炫昔: 鄭榮采 (경기, 파인)



舒庵: 李 長 煥 (서울)

次下

畫法有長江萬里書藝
如孤松一枝

陽山鄭基浩

陽山:鄭基浩(경남,장승포)

畫法有長江萬里書
藝如孤松一枝

魯山河顯

魯山:河顯(전북,이리)

畫法有長江萬里書
藝如孤松一枝

東鳩金京泰

東鳩:金京泰(경기,안양)

次下

화법유장강이만리에별취트와고서
예는의로고나수한가지와갈나

도운의가물크사한의부여하느다도운장용남

도운:張用南(서울)

畫法有長江萬里書藝如
孤松一枝

平山宋根福

平山:宋根福(경기,수원)

畫法有長江萬里書
藝如孤松一枝

志原:朴洋濬(충북,청주)

入 賞 科 生 名 單

等位	姓名	住 所	特選	等位	姓名	住 所	特選	等位	姓名	住 所	特選	等位	姓名	住 所
次上	李長煥	서울 강동길동 363-2	次上	李長煥	서울 강동길동 363-2	特選	李長煥	特選	李長煥	서울 서대문 연희2동 138-65	入選	李長煥	李長煥	서울 서대문 연희2동 138-65
次上	鄭榮采	경기 과천별양 1-3	次上	鄭榮采	경기 과천별양 1-3	特選	鄭榮采	特選	鄭榮采	서울 서대문 연희2동 138-65	入選	鄭榮采	鄭榮采	서울 서대문 연희2동 138-65
次上	金順姬	서울 은평 불광 434-11	次上	金順姬	서울 은평 불광 434-11	特選	金順姬	特選	金順姬	경기 성남 수진2동 4004	入選	金順姬	金順姬	경기 성남 수진2동 4004
次上	鄭基浩	경남 장승포 불광 434-11	次上	鄭基浩	경남 장승포 불광 434-11	特選	鄭基浩	特選	鄭基浩	충남 청양 비봉강정 365	入選	鄭基浩	鄭基浩	충남 청양 비봉강정 365
次上	金京泰	경기 안양 관양 뉴블루A다동	次上	金京泰	경기 안양 관양 뉴블루A다동	特選	金京泰	特選	金京泰	전남 목포 남교동 5-5	入選	金京泰	金京泰	전남 목포 남교동 5-5
次上	河 顯	전북 이리 창인1가 17-1	次上	河 顯	전북 이리 창인1가 17-1	特選	河 顯	特選	河 顯	대전 동구 인동 176	入選	河 顯	河 顯	대전 동구 인동 176
次上	朴洋潯	청주 충주 내덕2동 59-4	次上	朴洋潯	청주 충주 내덕2동 59-4	特選	朴洋潯	特選	朴洋潯	충북 청원 북이장양 20	入選	朴洋潯	朴洋潯	충북 청원 북이장양 20
次上	宋根福	경기 수원 판달1가 93	次上	宋根福	경기 수원 판달1가 93	特選	宋根福	特選	宋根福	서울 동대문구 이문 270	入選	宋根福	宋根福	서울 동대문구 이문 270
次上	張用南	서울 송파 가락본동 50	次上	張用南	서울 송파 가락본동 50	特選	張用南	特選	張用南	대구 남구 봉덕1동 585-15	入選	張用南	張用南	대구 남구 봉덕1동 585-15
特選	尹榮主	충남 서천 장항 창선2리 486	特選	尹榮主	충남 서천 장항 창선2리 486	特選	尹榮主	特選	尹榮主	부산 광안2동 142-26	入選	尹榮主	尹榮主	부산 광안2동 142-26
特選	全永夏	서울 강서 염창 275-5	特選	全永夏	서울 강서 염창 275-5	特選	全永夏	特選	全永夏	서울 중로 신교6-47	入選	全永夏	全永夏	서울 중로 신교6-47
特選	李起和	경기 안양 석수3동 785-16	特選	李起和	경기 안양 석수3동 785-16	特選	李起和	特選	李起和	부산 동구 수정1동 1041-4	入選	李起和	李起和	부산 동구 수정1동 1041-4
特選	金鍾錫	전북 이리 모현1가 423-3	特選	金鍾錫	전북 이리 모현1가 423-3	特選	金鍾錫	特選	金鍾錫	대전 서구 가수원동 642	入選	金鍾錫	金鍾錫	대전 서구 가수원동 642
特選	安 杓	서울 중로 낙원 284-6	特選	安 杓	서울 중로 낙원 284-6	特選	安 杓	特選	安 杓	경기 성남 장대원2동 2999-15	入選	安 杓	安 杓	경기 성남 장대원2동 2999-15
特選	李瓊蘭	서울 동대문 답십3동 464-1	特選	李瓊蘭	서울 동대문 답십3동 464-1	特選	李瓊蘭	特選	李瓊蘭	서울 서대문 연희2동 138-65	入選	李瓊蘭	李瓊蘭	서울 서대문 연희2동 138-65
特選	崔桐柱	서울 강서 등촌2동 513-1	特選	崔桐柱	서울 강서 등촌2동 513-1	特選	崔桐柱	特選	崔桐柱	서울 서대문 연희2동 138-65	入選	崔桐柱	崔桐柱	서울 서대문 연희2동 138-65
特選	趙賢貞	서울 은평 불광2동 171-28	特選	趙賢貞	서울 은평 불광2동 171-28	特選	趙賢貞	特選	趙賢貞	경기 성남 수진2동 4004	入選	趙賢貞	趙賢貞	경기 성남 수진2동 4004
特選	崔順禮	전북 군산 문화 893-34	特選	崔順禮	전북 군산 문화 893-34	特選	崔順禮	特選	崔順禮	충남 청양 비봉강정 365	入選	崔順禮	崔順禮	충남 청양 비봉강정 365
特選	鄭惠慶	대구 동구 효목1동 163-20	特選	鄭惠慶	대구 동구 효목1동 163-20	特選	鄭惠慶	特選	鄭惠慶	전남 목포 남교동 5-5	入選	鄭惠慶	鄭惠慶	전남 목포 남교동 5-5
特選	沈映洙	서울 관악 봉천3동 14-92	特選	沈映洙	서울 관악 봉천3동 14-92	特選	沈映洙	特選	沈映洙	대전 동구 인동 176	入選	沈映洙	沈映洙	대전 동구 인동 176
特選	허정무	충남 아산 신창 읍내리	特選	허정무	충남 아산 신창 읍내리	特選	허정무	特選	허정무	충북 청원 북이장양 20	入選	허정무	허정무	충북 청원 북이장양 20
特選	이영미	충북 청주 사직2동 쌍용A3동 201	特選	이영미	충북 청주 사직2동 쌍용A3동 201	特選	이영미	特選	이영미	서울 동대문 회감1동 183-259	入選	이영미	이영미	서울 동대문 회감1동 183-259
特選	崔信娥	서울 동대문 회감1동 183-259	特選	崔信娥	서울 동대문 회감1동 183-259	特選	崔信娥	特選	崔信娥	충북 청주 내덕2동 407-5	入選	崔信娥	崔信娥	충북 청주 내덕2동 407-5
特選	金鎮子	충북 청주 내덕2동 407-5	特選	金鎮子	충북 청주 내덕2동 407-5	特選	金鎮子	特選	金鎮子	서울 성북 등선5가 13-3	入選	金鎮子	金鎮子	서울 성북 등선5가 13-3
特選	金廷禧	서울 성북 등선5가 13-3	特選	金廷禧	서울 성북 등선5가 13-3	特選	金廷禧	特選	金廷禧	경기 안양 석수1동 182-2	入選	金廷禧	金廷禧	경기 안양 석수1동 182-2
特選	金順男	경기 안양 석수1동 182-2	特選	金順男	경기 안양 석수1동 182-2	特選	金順男	特選	金順男	경기 성남 장대원2동 2999-15	入選	金順男	金順男	경기 성남 장대원2동 2999-15
特選	金榮實	경기 성남 장대원2동 2999-15	特選	金榮實	경기 성남 장대원2동 2999-15	特選	金榮實	特選	金榮實	서울 동대문 답십3동 464-1	入選	金榮實	金榮實	서울 동대문 답십3동 464-1

百濟復興軍의 遺蹟地 任存城 保存 運動

趣旨; 내 나라 百濟를 잃은恨을 품고 10 余日 동안에 모여들은 三萬余 遺民軍의 熱氣는 官軍에 依해서 잃었던 200 余城을 奪還하면서 나라 再建을 눈앞에 두고도 統率層의 內紅으로 因해 무산된恨을 다시 품어야 했던 百濟復興의 義兵精神을 우리나라 民族史의 最初에 나라사랑의 表象이요 復興軍의 最後 激戰地인 내고장의 任存城은 全郡民이 參與하고 精誠으로 가꾸어 義兵의 恨을 慰靈하며 이 高貴한 歷史를 後世에 올바르게 傳해 주기 爲함에 있다.

方案; 荒墟가 된 나라사랑의 象徵跡이요 百濟의 遺墟地가 거의 버림받고 있는 任存城을 가꾸는데 그 目的을 두며

計劃; 1. 郡內 團體 機關의 協議體 構成

1. 協議體 代表者(實務)現地 踏查

1. 綜合 實行 計劃 樹立

1. 城郭 測量

實行(案); 方法: 1. 全郡民의 參與

2. 分割 分擔해서 淨化作業 原則

造成; 1. 觀光코스, — 歷史의 現場 —

1. 靑少年 修練場 造成

— 歷史의 現場에서 精神教育 —

1. 百濟復興 義兵 慰靈塔 建立

— 郡內 學生의 精誠으로 이룩하는 石築塔 —

淨化; 1. 우물터 3個地

1. 城郭 周邊 雜木 除去作業

1. 門址

1. 閣樓地

1. 용바위, 원바위, 굴, 폭포, 奇異한바위

1. 登山路 開拓

弘報; 1. 團體 機關의 遺蹟地踏查

— 登山, 소풍 —

1. 出鄉人士 및 子女姪의 史蹟巡禮

1. 冊子 刊行

○ 只分村土俗놀이 上半期 行事 계획

後 記

○ 宿願事業이었던 秋史先生追慕全國書藝白日場을 權五昌 城主의 心慮에 依해서 出帆하게 되어 지난해는 보람 있는 행이기도 했다. 今年에는 第二回 白日場을 準備 하여야 하는 帑藏 作業이 기다린다.

○ 文化部가 選定하는 이달의 人物은 지난 7월에 처음으로 이고장의 秋史 金正喜先生을 選하게되어 秋史先生을 照明하는 學術講演會로 마련 했었다.

○ 辛未年の 첫 行事는 「朝鮮朝末前後 抗日志士의 自主精神과 愛國精神」을 主題로 禮山郷土史研究會 主管으로 갖을 세획이다. 지난 89년에는 任存城을 主題한 道聯合 研究發表 심포지움을 마련해서 큰 成果를 얻은바 있어 이번에도 기대가 크다.

○ 清白吏가 많이 배출 할수 있는 政治風土가 아쉬운 때이기에 이고장에 연고가 있는 清白吏 權瑣公과 李命俊公의 行狀을 特輯으로 엮어 보았다.

○ 今年에는 任存城 가꾸기를 汎郡民運動으로 그면모를 갖추어 볼 計劃이다. 이 또한 나라사랑 精神運動이며 내고장 가꾸기 運動이기에 心血을 쏟우어야 겠다.

(朴炳夏)

發行日／1991年1月1日

通卷15輯

發行／社團
法人禮山文化院

禮山邑禮山里433

☎0458 2-2441 番

印刷／光明精版印刷公社

禮山邑禮山里723-9

☎0458 33-4102 番

2-4102 番